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제16대 장로 5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회

- 오늘 찬양예배 후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6대 장로 5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고, 헌법 제41조 제1항, 서울교회 정관 제6조 3항에 따라 총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로 피택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부터 오후 찬양예배 직전까지 본당 2층 로비에서 공동의회 회원임을 확인한 후에 투표권을 배부하며, 공동의회 시 투표권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후보 9명 중 5명만 기표를

하게 됩니다.(6명 이상 기표 시는 무효표가 됩니다)

장로 선출 방법은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2/3 이상 득표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곧바로 2차 투표를 시행하되, 1차 투표 득표자 순서대로 새 번호를 부여하여 실시합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기도 준비하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대학 '선·후배의 만남의 날' 행사 가져



호산나대학은 취업한 졸업생 70여 명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선·후배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1일(월)에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호산나대학 졸업 후 다양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계획되었고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호산나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후 1부는 환영식, 예배, 선배 소개, 2부는 선배와 함께하는 취업 컨설팅, 간식타임,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중 선배와 함께하는 취업 컨설팅은 대강당에 취업지별로 부스를 마련해 후배들이 관심 있는 회사 선배에게 찾아가 상담하는 '취업 박람회' 형태

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배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팁을 많이 얻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 보다 100배 노력해야겠다 △나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선배들에게 취업의 답을 찾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을 소개해 줘서 기뻐다 △후배들 앞에 자신감 있게 대답한 것 같아 만족한다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산나대학의 부설기관인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자 보수교육, 취업자 캠프, 선·후배 만남의 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 총해작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2023. 6. 6.(화) - 6. 24(토)

강사: 손달익 위임목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 8:7)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내 인생에 있는 예수 흔적

(갈 6:11-18)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오"(요 14:8)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그의 대표적 교회론입니다. 이 이론의 최우선

적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론적 가르침과 책망의 말씀을 한 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참 사도의 증거가 그 몸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 방문하여 전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디베 등의 도시들을 포함한 넓은 지방입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지역을 방문하며 심혈을 기울여 갈라디아 지역 전도와 교회 양육을 위해 노력했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일부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이 벌인 소동에 아직 믿음이 어렸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격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2. 바울의 강력한 도전

율법주의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바울의 사도직은 자칭 사도로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갈 5:2-4)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임명받고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선택되고 부름받아 사도 된 것임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 시비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시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서로 하나 될 것을 주장하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며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많이 애용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거대한 세력인 가톨릭의 교황청과 세속권력의 힘에 맞서서 무너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람이 강탈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려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에게 끝없이 도전 정신과 용기와 꿈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호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팡이 하나 들고 험험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결연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850명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믿음

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좀 더 확실해 집시다. 좀 더 강해 집시다. 좀 더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으로 헌신합시다.

복음에 대해 좀 더 확실해 집시다!

좀 더 강해 집시다!

좀 더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으로

헌신합시다!

그리하여 예수 흔적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예수 흔적이 있는 인생으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의 몸에 핍박으로 인한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런 흔적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한 육체 흔적을 자랑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14절)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온몸에 가득하고 온 인생에 가득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만큼 많이 활동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상가였고 신학자였고 영성가였지만 동시에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삶의 이력 속에 예수 흔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교수 George E Wright 박사는 그의 저서인 「God Who Acts, 활동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만물이 창조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고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하시던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입으시며 기어이 십자가를 지셨고, 일했던 바울은 온몸에 예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실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실 때 주님은 더욱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천국 잔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흔적도 생기겠지만 천국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곳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김애리 권사
(70인전도대 차장)

방콕 시내를 지나다 보면 태국 국왕의 사진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도 두 손을 핸들에서 땀 채로 두 손 모아 받드시 인사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 놀라운 광경은 젊은 엄마가 유모차에 태운 어린 아가에게 손을 모으도록 붙잡으며 고개를 숙이도록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지극한 종교교육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고 안타까워하던 것처럼 그 앞에는 형형색색의 천들과 너저분한 제사단이 있을 뿐입니다. '저 정성과 열의를 하나님께 쏟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병어리 크리스천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최우선적으로

언어를 배워야하고 현지인과의 소통과 교육을 위해 성경통독도 현지어에 집중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전도가 제일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전도도 은사 중의 하나지만 우리는 각자 누군가에게서 혹은 문서로 전도받은 자들이고 주님은 승천 시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3-15)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듣자마자 오기도 하고 여러 번의 복음을 듣고 여러 명의 전도자를 통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두려고 할 필

요는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결실을 보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만족 자기 중심의 전도가 아닌 각자 받은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며 전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하나님만이 계산하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70인전도대가 3월 4일(토) 첫 노방전도를 시작하여 4월 19일(수)에는 수요·토요 도고팀이 구성됨으로써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한 전도의 정보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든든한 기도팀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는 전도자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많이 합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마음의 평화와 회개의 눈물

이현주 성도 (1교구)

모태신앙인 저는 그동안 세속에 물들어 유년부 이후로는 교회에 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보니 뒤늦게 아이와 함께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몇 군데 교회를 가보았지만 그것도 일회성에 그쳤었습니다. 똑같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이듯 이곳 서울교회에 오게 되어 설교와 예배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회개의 눈물이 나게 되어 저의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를 통해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5월 새가족부 수료하신 성도들



박혜숙 성도 (3교구)



박미옥 성도(4교구)



최혜수·홍호선 성도 (5교구)



이성형 성도 (2교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

도윤이는 누나를 따라서 교회에 온 지 2주 정도 된 시점에서 아기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수업을 들었지만, 아기학교 수업을 듣고 온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윤이의 질문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기도는 왜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아기학교를 처음 듣는 도윤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이 놀랍기도 하고 엄마인 저도 성경을 더 통찰을 가지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연신 성도



우도윤 어린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 안에서 깃들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기들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세상은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도 꼭 필요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풍랑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누가복음 4장 39-40절)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윤이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며 참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아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6)



YMCA 건물



질레트
(Phillip L. Gillette)



YMCA 운동회



YMCA 체조

기독교, 전인적 건강을 도모하다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청년회)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산업 혁명 직후인 1844년 결성한 청년단체이다. YMCA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적·영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YMCA의 기본은 독일 경건주의 신앙에 따른 정신적 각성, 만인사제론에 따른 평신도성의 자각, 선교에 대한 열정과 기독교 정신으로의 일치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대적 요청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이었던 YMCA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11년 뒤인 1855년에는 파리에서 세계YMCA연맹이 결성되었다.

1899년 서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조선 청년 150여 명은 조선에도 YMCA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세계연맹에 YMCA운동을 위한 건물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선교는 양반 계층보다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선교 대상의 폭을 넓혀 상류계층의 청년들에게도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연맹은 전문 간사가 없는 곳에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정책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였지만 국제위원회 총무인 존 모트(John R. Mott)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모트의 지시로 1900년 한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한 국제위원회 수석 간사 라이언(D. W. Lyon)은 조선YMCA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국제위원회는 이 보고에 기초해 1901년 질레트(Phillip L. Gillette)를 전문 간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901년 9월 조선에 도착한 질레트는 1903년 3월에는 회관의 건축과 조선YMCA 설립을

위한 준비를 거의 완료하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1903년 10월 28일 37명의 발기인 및 동지가 헐버트를 위원장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를 창립하였다. 초대 이사는 13명이었는데 조선인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인(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으로 선교사와 YMCA 관계자였다. 이 외국인들에는 장로회, 감리회, 성공회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어 기독교 연합기관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

황성기독교청년회는 YMCA의 사중목적사업에 입각해 활동을 시작했다. 사중목적사업(Fourfold Program)은 YMCA의 전인교육이념으로 덕·지·사교·체(spiritual, mental, social, physical)의 훈련을 통해 시민사회의 주체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황성기독교청년회는 종교부, 교육부, 체육부, 사교부의 조직을 만들고 각 부서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평의회로 의사부를 두었다. 그리고 기독교적 시민 주체를 만들어 내는 문화적 공론장, 정치적 공론장을 만들고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근대 스포츠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질레트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내한할 때부터 취미생활을 위해 간단한 야구도구를 챙겨왔는데 조선인들이 야구에 관심을 보이자 1904년부터 아예 YMCA회원들을 대상으로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금의 한국 프로야구로 이어지는 한국야구 역사의 시작이었다. YMCA가 1910년 전까지 조선에 보급한 스포츠는 야구 외에도 축구, 농구, 유

도, 체조, 육상, 검도 등으로 다양했다.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의 출발점에는 대개 YMCA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

또한 YMCA는 1906년부터 매년 대운동회를 개최하고 스포츠를 널리 알리면서 회원들의 친교를 도모했다. 그러나 YMCA의 대운동회는 1909년을 마지막으로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다. 다른 운동회들은 문제없이 유지되는 와중에 유독 YMCA의 운동회만 사회 풍조를 이유로 금지되었는데 이는 YMCA운동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일제의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의 커다란 장애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YMCA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나라의 부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고 체육의 보급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운동회를 마친 후의 진행된 친교모임은 민족의 자주를 염원하는 청년들의 성토장이 되기 일쑤였는데 일제의 입장에서는 영 달갑지 않은 일이었음은 분명했다. 이후 YMCA의 체육은 일시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과 거리를 두다가 1920년대에 신기준이 체육부 간사로 임명되면서 그 성향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기독교는 한국 스포츠 역사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겼다. 송실학교 축구부는 1927년 일본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망국의 설움을 위로하였다. 1936년 베를린에서 마라톤 우승으로 한국인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었던 손기정의 코치도 「성서조선」의 발행인으로 알려진 무교회주의 기독교인 김교신이였다.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영향을 사회 곳곳에 미쳤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교육국 학생들은 대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교회 어르신들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도하신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득남



- 4교구 전경배 성도·김연경 집사
5월 10일 득남
(4교구 김규태 안수집사·박미혜 권사 외손자)

득남



- 5교구 한승균 성도·김양언 집사 가정
5월 10일 득남
(5교구 김현영 안수집사 최현인 권사 외손자)

식사 제공

- 5교구 이경순 안수집사·이진영 집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5월22일	월	대하 31-33		5월22일	월	마 14-18	
5월23일	화	대하 34-36		5월23일	화	마 19-22	
5월24일	수	스 1-2		5월24일	수	마 23-26	
5월25일	목	스 3-7		5월25일	목	마 27-28, 막 1-2	
5월26일	금	스 8-10		5월26일	금	막 3-6	
5월27일	토	느 1-4		5월27일	토	막 7-10	
5월28일	주일	느 5-7		5월28일	주일	막 11-1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정의 달 5월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풍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선교지에 치유와 회복, 부흥의 은혜 내려 주소서.
3.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튀르키예를 비롯한 재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